

百濟의 冠飾考

복식문화연구원

柳喜卿

目 次	
1. 序 論	3) 金銅製 관식
2. 百濟의 冠飾制度	① 羅州 新村里 관식
3. 百濟 出土品の 冠飾	② 中上塚 관식
1) 金製 冠飾	4. 百濟國使圖의 관식
① 王의 관식	5. 結 論
② 王妃의 관식	참고문헌
2) 銀製 관식	

1. 序 論

백제는 부여계인 고구려 유이민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로서 溫祚王(18. B.C.-28. A.D)를 시조로 하여 義慈王(641-660 A.D.)에 이르기까지 복식의 계급적 분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18대 古爾王(234-286 A.D.)에 이르러서는 고대의 국가 형태를 갖추면서, 同王 27년(260. A.D.)에 百濟品冠服色을 제정하였다. 즉 冠飾과 衣帶色으로 상하의 등위를 구별하였다.

제25대 武寧王(501-523. A.D.)陵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백제는 검박하고 금속장식을 많이 하지 않았으리라 추측했으나 그 定說이 뒤바뀌어지며 백제도 얼마나 호화로웠었는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무령왕릉에서는 왕관식 1쌍 왕비관식 1쌍 4기가 출토되었다.

무령왕릉은 무녕왕 12년(512. A.D.)에 陵墓가 축조되었거나 준비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외에 官人의 銀冠飾도 몇 개 발굴되었고 또

가장 완비된 금동관도 출토되었다.

자료는 많지 않으나 문헌과 유물을 대조하면서 백제시대의 관식을 인식하고 사용법 등도 추정하여 조금이라도 후학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2. 百濟의 冠飾制度

백제 品冠服色(삼국사기 제24 백제본기 제2)¹⁾ 백제 8대 고이왕은 27년 정월에 六佐平制를 마련하고 동시에 16의 品級을 제정하였다. 2월에는 육좌평을 포함한 16품급중 銀華冠飾은 六品이상만이 가능하였고 이하는 없었다. 衣色은 1품에서 6품까지는 紫衣이며 12품에서 16품까지는 靑衣를 제정하면서 平人에게는 禁緋紫衣를 명하였다. <표 1>

同王 28년 정월에는 王服紫大袖袍, 靑錦袴, 金花飾, 烏羅冠, 素皮帶, 烏革履, 座南堂 廳事라는 記事가 있다. 이는 왕의 의복에 대한 제도로서 왕은 紫色袍에 靑錦의 袴를 입고 烏羅冠에 金花飾을

1) 홍사준(1985), 「백제사료집」, (백제문화개발연구원).

하고 素皮로 된 띠에 검은 가죽신을 신었으며 南堂에 앉아 廳事를 하였다. 즉, 王은 金花로 冠을 장식하고 品官은 銀花로 장식한다는 것이 다르나, 衣色은 王이나 品官이나 紫色으로 같은 색을 말하고

爲飾, 素皮帶, 烏革履, 官人 藍緋爲衣
銀花飾冠 庶人 不得衣緋紫.

이외에 唐書나 通典등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이를 도표로 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官名	品級	冠飾	衣色
佐平	1품관	銀花	紫衣
達率	2품관	銀花	紫衣
恩率	3품관	銀花	紫衣
德率	4품관	銀花	紫衣
干率	5품관	銀花	紫衣
奈率	6품관	銀花	紫衣
將德	7품관	無	緋衣
施德	8품관	無	緋衣
固德	9품관	無	緋衣
秀德	10품관	無	緋衣
對德	11품관	無	緋衣
文督	12품관	無	青衣
武督	13품관	無	青衣
佐軍	14품관	無	青衣
振武	15품관	無	青衣
克虞	16품관	無	青衣

<표 1> 百濟品冠服色

있다. 그러나 紫色에도 濃淡으로 차이를 둘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衣次에 따라서도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3세기 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백제가 앞서가며 불교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중국 문헌²⁾에 보면 (周書 권49 列傳 제41 異域土 百濟條)

- 1) 周書 : 官은 16품으로 6품 이상은 銀帶로 冠飾을 하고 7품은 紫帶, 8품은 皂帶, 9품은 赤帶, 10품은 靑帶, 11품, 12품은 黃帶, 13품, 14품, 15품 16품은 白帶로 한다.
- 2) 北史 : (권 94 列傳 82) 내용은 周書와 같음.
- 3) 隋書 : (권 81 列傳 46 東夷 百濟) 冠制 6품 이상은 銀華飾
- 4) 舊唐書 : (권 199 上列傳 제149 東夷 百濟) 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金花

2) 홍사준, 앞의 책.

官名	品級	冠飾	帶色	衣色
佐平	1품관	銀花	(紫帶)	緋衣
達率	2품관	銀花	(紫帶)	緋衣
恩率	3품관	銀花	(紫帶)	緋衣
德率	4품관	銀花	(紫帶)	緋衣
干率	5품관	銀花	(紫帶)	緋衣
奈率	6품관	銀花	(紫帶)	緋衣
將德	7품관	無	紫帶	緋衣
施德	8품관	無	皂帶	緋衣
固德	9품관	無	赤帶	緋衣
秀德	10품관	無	靑帶	緋衣
對德	11품관	無	黃帶	緋衣
文督	12품관	無	黃帶	緋衣
武督	13품관	無	白帶	緋衣
佐軍	14품관	無	白帶	緋衣
振武	15품관	無	白帶	緋衣
克虞	16품관	無	白帶	緋衣
平人	無	無	○	禁緋紫衣

<표 2> 百濟階級別服飾

冠帽에 있어서는 1품에서 6품까지는 銀花장식을 하고 7품에서 16품까지는 銀花飾은 없었으나 冠制는 동일하였으며 帶色에 있어서는 1품에서 7품까지는 紫帶, 8품은 皂帶, 9품은 赤帶, 10품은 靑帶, 11품과 12품은 黃帶, 13품에서 16품까지는 白帶를 사용하였고 衣色에 있어서는 官人은 平民과 구별하기 위하여 모두 緋色衣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一般庶民에게는 紫色과 緋色을 衣에 사용하는 것을 禁하였으니 後世의 禁色이란 아마도 이때부터 발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계급적 질서주의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文獻과 中國 文獻과는 다소의 차이가 보인다. 즉, 百濟의 冠飾에 대하여는 王은 金製의 冠飾이고 官人들은 銀製의 冠飾임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衣色에 있어서는 三國史記에는 紫, 緋, 靑色으로 階級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文獻에는 周書와 北史, 隋書에서는 品官과 帶色 그리고 冠飾에 對하여는 모두 같으나 王服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비로소 舊唐書에서만 王服과 官人服色이 나타나 있다. 이로 볼 때 中國 史書가 먼저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며 왜 王服에 관한 記錄이 뒤늦게 기록되었는지 모르겠다. 李南奭은 이를 史書選述年代는 周書, 隋書, 北史가 唐의 正觀年間(7세기 초엽)에 찬술되어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왕의 衣冠規定을 적고 있는 唐書(10세기 초엽)는 이보다 훨씬 늦은 後代에 찬술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우선 中國史書의 百濟 衣冠制 관련기록은 周書, 北史, 隋書가 초기의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인다.³⁾

그러므로 중국 사서를 초기의 것으로 보고 결국 표 2가 앞선 시대의 것이고, 표 1이 고이왕 이후의 것으로 보아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결국 王은 金冠飾이며 官人은 銀冠飾이고 그 형태는 草花形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시기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3. 百濟 出土品 冠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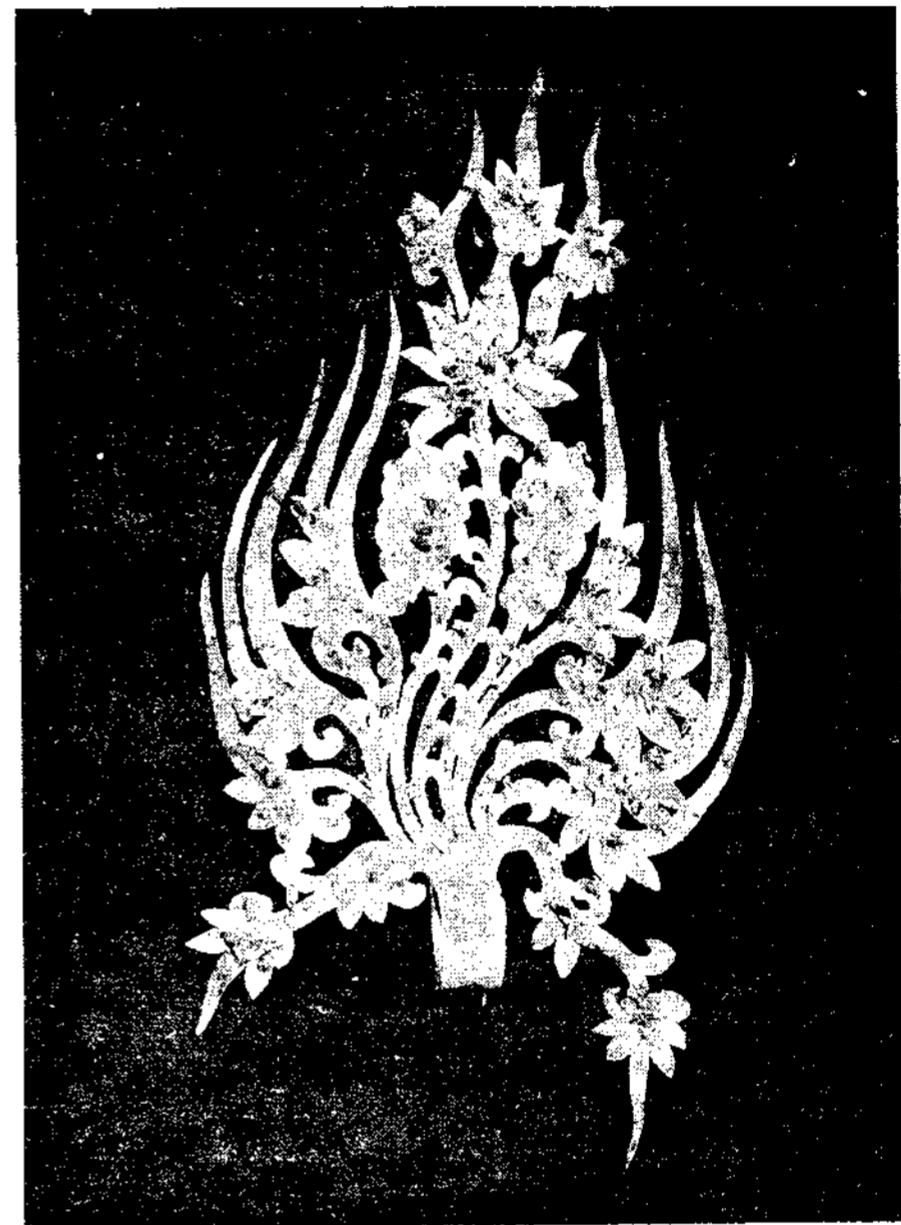
百濟에서 出土된 遺物 중에서 가장 유명한 純金製 冠飾으로는 무녕왕릉에서 出土된 2쌍의 관식이 있다. 그리고 銀製冠飾으로 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下黃里 出土의 銀製冠飾이 있다.

1. 무녕왕릉의 관식

① 王의 관식

무녕왕릉에서는 관식만이 한쌍이 나왔다. 높이는 30.7cm이다. 왕관식의 무늬는 草花紋透彫式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忍冬唐草紋으로 위로 뻗어 올라가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중앙에는 만개한 꽃송이와 잎 줄기를 배치하였다(사진 1). 초화식 양식은 北魏 불교 미술의 영향이라고 보며 고구려에서도 매우 숭상하고 있었음을 벽화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즉 舞踊塚의 主室 천정 받침에서도 초화문이 있고 또 主室의 狩獵圖 중에서도 초화문이 보인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佛像의 光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慶州 九黃洞 金製如來坐像과 立像에서 그 光背와 상통한다. 그리고 0.5cm 직경의 金瓔落이 全面에 달려 있어 動的인 화려함을 보여 주고 있다.



〈사진 1〉 무녕왕릉 출토 王 冠飾

관식의 위치에 있었어도 左右立飾이나 前後立飾이나 또는 冠前雙立飾이나의 설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광배 영향이 크다고 보았을 때 이는 마땅히 前後立飾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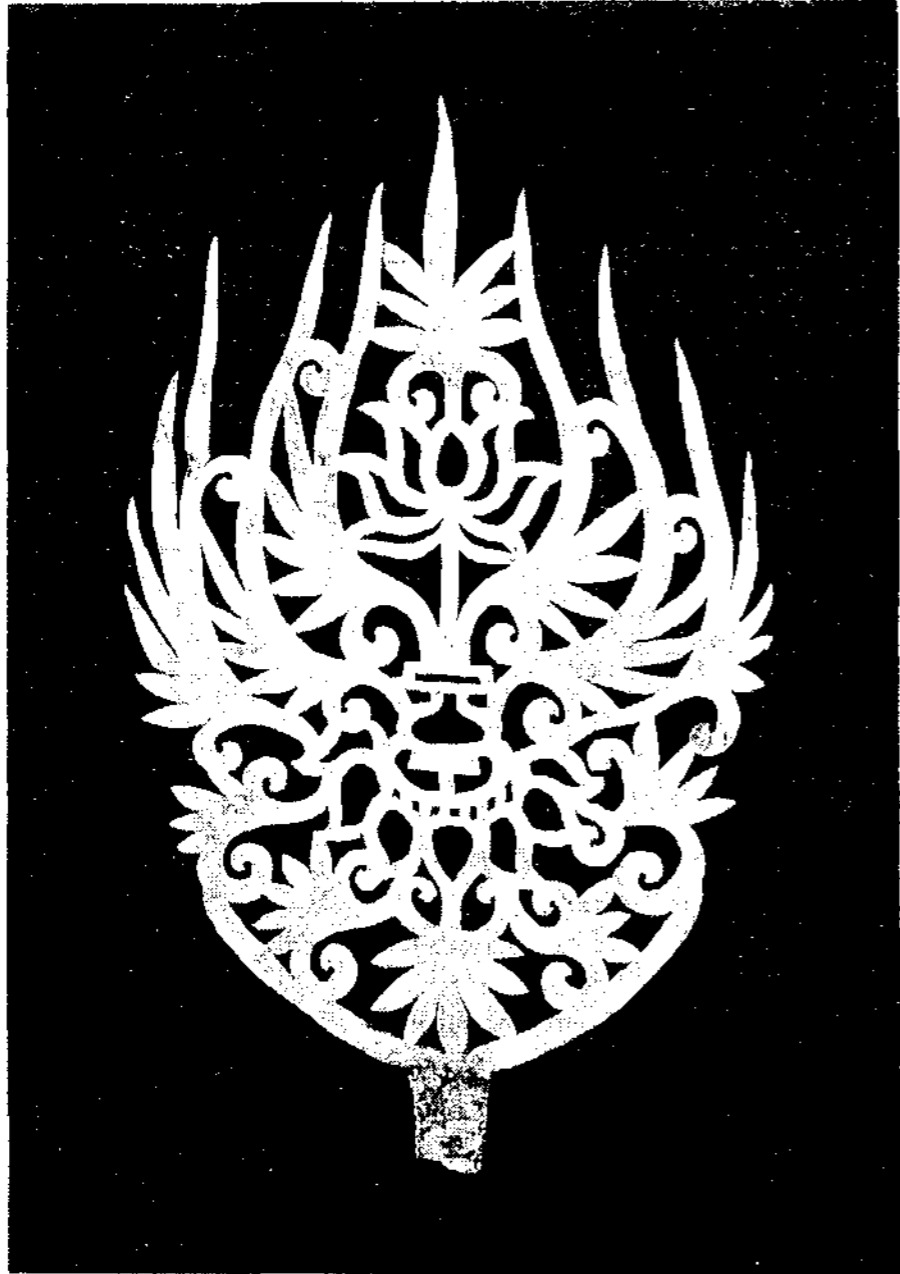
② 王妃의 冠飾

왕비의 관식은 왕관식과는 달리 무늬가 左右對稱으로 되어 있으며 영락은 없으나 오히려 嚴肅하며 정연한 정숙미를 보여주고 있다. 주된 무늬는 인동 당초무늬로 같으나 밑에 줄기로서 둥글게 받침을 하고 忍冬花와 唐草가 위로 뻗어 올라가서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사진 2) 중심부에서는 “伏蓮臺座 위에 寶瓶이 놓이고”⁴⁾ 세줄기의 가지가 뚫고 있다. 왕관과 같이 불교적인 영향에서 온 것이 사실이

3) 이남석(1990), 「백제 관제와 관식」, 『백제문화』 제20집, 공주대학부설 백제문화연구소.

4) 중앙일보사(1985), 「고분미술」.

지만 이은창은 “ 그 기본 양상은 곧 金花立飾으로서 高句麗, 新羅, 伽倻 등 삼국사회에서 공유한 전통적인 冠立飾임을 알 수 있다.”⁵⁾고 했다.



〈사진 2〉 무녕왕릉 출토 王妃 冠飾



〈사진 3〉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출토 은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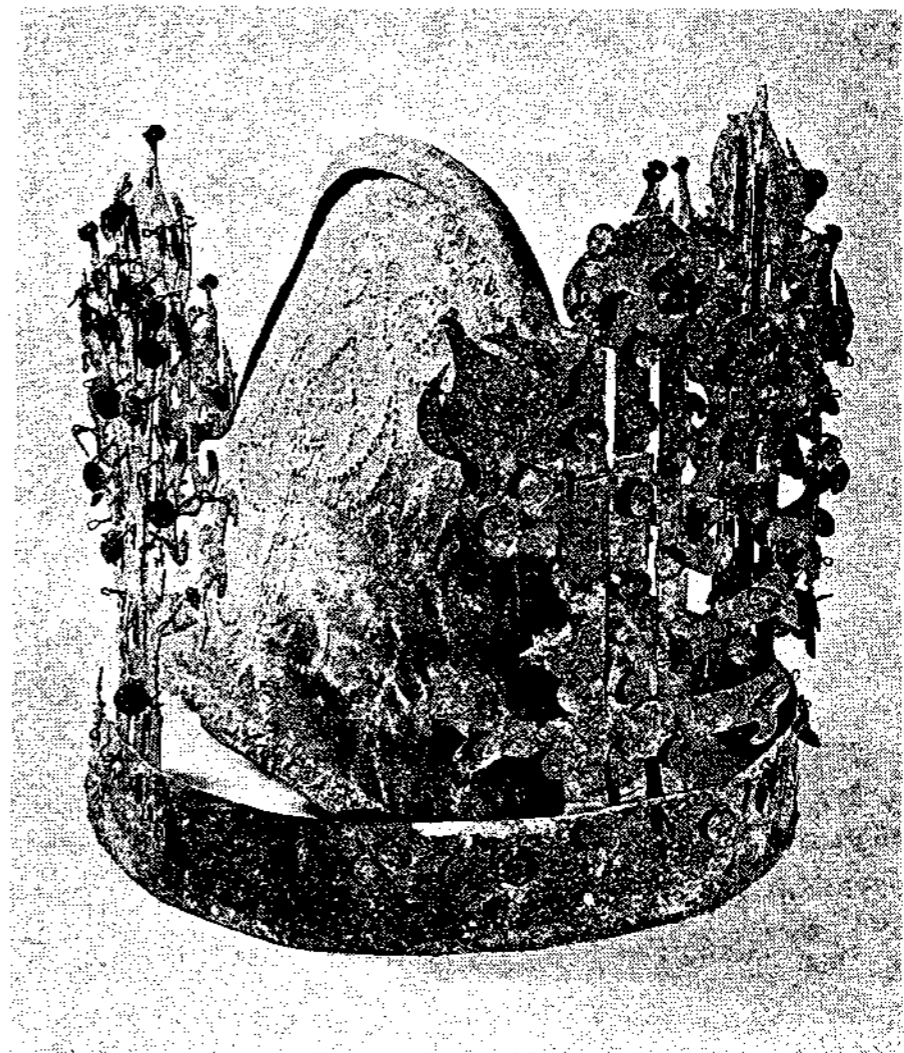
2. 銀製冠飾(사진 3)

忠南 扶餘郡 場岩面 下黃里 出土 국립부여박물관에 所藏되어 있는 銀製 冠飾이다. 백제시대에는 6품 이상 官人은 銀冠飾으로 제정되어져 있으므로 下黃里의 무덤은 그 주인공이 6품 이상 官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

花枝形 장식을 비스듬히 약간 높여서 배치하고 있다. 右側의 것은 중간이 부러져서 알 수 없으나 左側은 완전한 螺旋形 가지위에 꽃봉오리가 앉아 있다. 이와 비슷한 유물이 南原의 尺門里와 羅州 興德里에서도 발굴되었다 한다.⁶⁾

3. 金銅製 冠飾(사진 4)

全南 羅州郡 潘南面 新村里 9호분 瓮棺에서 金銅 弁形冠과 金銅立飾冠이 出土되었다. 弁冠은 內冠이



〈사진 4〉 전남 나주군 반남면 신촌리출토 금동제 관식

5) 이은창(1978), 「한국복식의 역사」, (교양국사 총서).

6) 이은창,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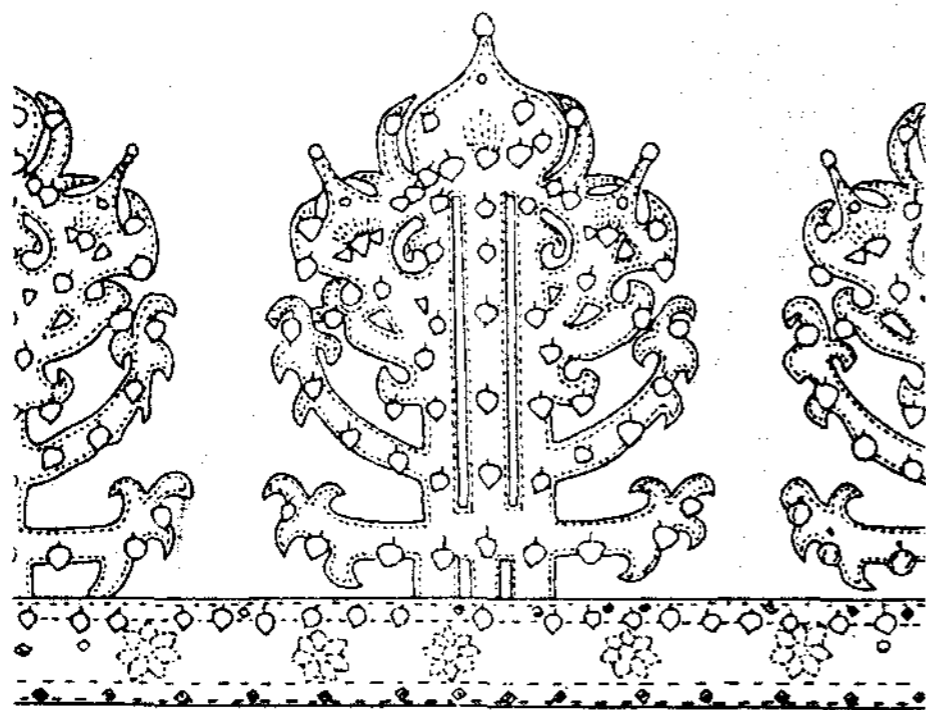
고 立飾冠은 外冠으로서 1벌이라고도 하는데 일찌기 秦弘燮 교수는 梨大史學研究所 발표회에서 98호 고분에서 외관만 나온 것으로 보아 내관은 死者를 위한 종교의식의 明器였다고 보며 따라서 내관과 외관은 각기 독립된 것이라는 說을 세웠다. 이를 수궁한다.

① 金銅弁冠

弁形으로 된 이 관은 蓮花紋과 唐草紋으로 장식한 金銅冠으로서 고구려의 折風帽 형태를 금속제로 하여 귀족층이 사용하던 백제의 유품이라고 생각된다. 弁冠은 2장의 같은 형의 삼각형을 합쳐서 上部에 같은 質로 솔기를 덮어 붙인 것이다.

② 金銅立飾冠(사진 5)

金銅臺輪에 3개의 立飾을 하였다. 입식은 花紋과 寶珠를 형성하여 삼단계로 좌우대칭적으로 美를 갖추었으며 전면에 영락을 장식하였다. 이 문양은 불교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가장 오래된 기초적인 입식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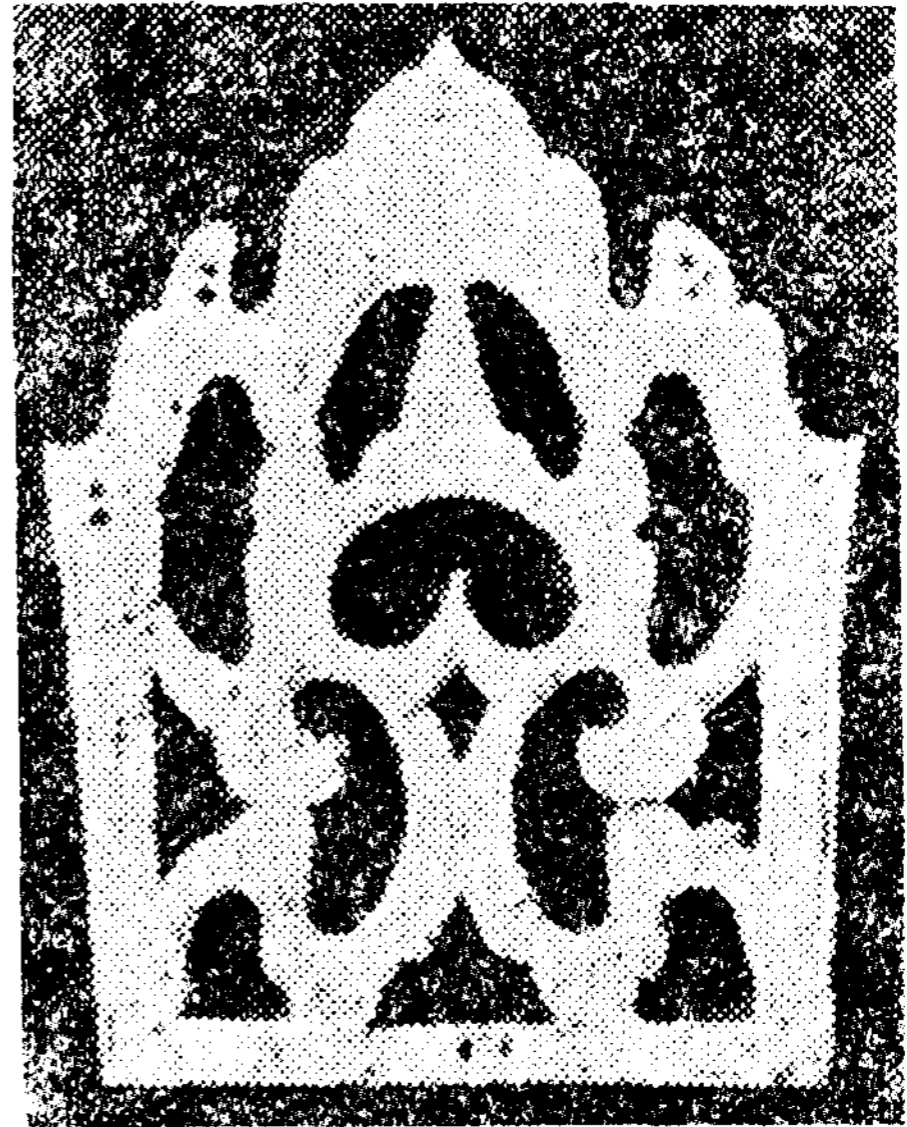


〈사진 5〉 전남 나주군 반남면 신촌리출토 금동제 관식

4. 中上塚의 冠飾(사진 6)

扶餘 陵山里 中上塚에서 관식이 출토된 바 있다고 한다. 이는 이은창씨의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을 채용한다.⁷⁾ 이 透彫金具가 중상총 피장자 頭部에서 출토되었고 그 금구 주변에는 바늘구멍이 있어 어느 물체에 붙일 수 있게 된 점으로 보아 이는 冠에 장식하였던 관식 금구로 추정된다. 이

관식은 冠前立飾에 해당 된다. 도안은 三山形의 대칭적인 투조금구로서 百濟의 山景紋博의 三山制의 도안과 상통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三山制 圖案은 「三國遺史」에 기록된 바 있는 浮山, 烏山, 三神山에 대한 思想의 표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6〉 부여(扶餘) 능산리(陵山里) 중상총(中上塚) 출토 금동관식(金銅冠飾)

羅州 新村里의 金銅冠을 보면 冠帽과 冠飾이 모두 金銅製로 되어 있다. 무녕왕릉의 관식은 왕이나 왕비의 문양형태의 기본이 같고 입식이 전립식이라는 것도 같다. 그리고 臺輪이 있었을 것인데 가죽이었든지 섬유질이었던지 부식되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대륜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이것이 있었음으로 입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입식이 앞을 중심으로 하여 장식되어 있음도 확실하게 추측이 된다. 입식이 하나일 때는 앞이었을 것이고 둘이면 전후였을 것이며, 입식이 셋이면 앞 중심과 양옆이 되었었을 것은 이 세가지 유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材質에 있어서는 金, 銀 그리고 金銅이 사용되었다. 金과 銀은 冠制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王은

7) 이은창, 앞의 책.

金花飾, 6품이상은 銀花飾임의 부합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金銅冠은 材質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들의 출토위치나 관식의 형태로 미루어 기록상의 冠制와는 相違가 많은 것이 발견된다. 한편 관식이 출토된 유적인 고분을 通觀하면 문헌의 관제기록과 相違하는 新村里나 笠店里의 관식출토 고분이 가장 이른 시기를 보이고 있다.”⁸⁾ 결국 금동관이 시기적으로 早期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촌리의 금동관은 甕冠묘에서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그 주인공이 그 지역의 首長級으로서 유력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형태가 확실해지기 이전, 즉 고이왕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관식은 없으나 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扶餘 冪瓦 유적에서 나온 기와의 그림으로 畫瓦에 弁帽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庶民의 像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있다(사진 7).



〈사진 7〉 百濟 畫瓦人物(扶餘博物館 所藏)

또 부여 정림사에서 陶甕이 나왔는데 중국의 籠冠과 같은 人物像도 출토되었다.

4. 百濟 國使圖의 冠飾

백제의 국사도(사진 8)는 현재 중국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에게 백제시대의 복식표현은 梁(505-557 A.D.; 백제 무녕왕-威德王代) 職貢圖의 백제국사가 유일하다. 國使라고



〈사진 8〉 百濟國使圖

하면 6품이상임은 물론일 것이다. 관묘에 있어서는 문헌에 보이는 바 6품 奈率까지 은화를 장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梁職貢國使도 마땅히 관식으로서 은화를 했다고 본다. 이는 앞에서 北史列傳 百濟條에서 보듯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鳥羽를 插飾하였는데 朝拜나 祭祀 때에는 加翅하고 戎事 때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고구려의 鳥羽冠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官服, 冠帽의 銀葩(銀花)飾은 농업경제로 이행되면서 銀을 세공하여 花모양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국사도를 볼 것 같으면 도저히 확실하지가 않아서 알아보기

8) 이남석, 앞의 책.

어렵다.

고구려의 관모로 李如星의 『朝鮮服飾考』에서 보면 貴人 大官人은 머리에 幘을, 官人級에서는 折風을, 庶人은 折風 또는 弁을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밀접하였던 백제에서도 책을 일찌기부터 도입하였을 것이나, 그 형상을 알 수가 없다.

왕은 고이왕 때 기록으로 보아 烏羅冠에 金飾(金花)로 장식하였으므로 국사도 왕과 같은 오라관에 은화 장식일수도 있겠으나 백제 사신의 관모는 색으로 보아 흰색에 가깝고 위가 거의 네모형으로 되었으며 같은 色과 質로서 臺輪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끈이 한쪽에 두가닥씩 臺輪에 달렸는데 귀를 중심으로 앞뒤로 늘어져서 턱 밑에서 매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에게는 금관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삼국이 모두 같았음은 고문헌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백제의 관은 왕의 관도 오라관이었으므로 사신의 것도 색으로 된 羅冠에다 은화를 장식한 것이리라 추측된다. 百濟使臣圖 옆에 기록된 글에서 보면 끝줄에 帽爲冠이라고 있어, 帽가 아니라 冠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帽는 巾으로서 부드러운 것이고 冠은 뽀뽀한 것이라고 보며 隋書 禮儀志 기록에 의하면 官吏의 禮冠으로 平巾幘을 쓰고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天子 皇太子 從行時에도 평건책을 착용하였고 唐書 輿服志에서도 고승복일 때는 평건책을 통용한다고 했는데, 단정할 수는 없으나 幘 종류의 冠이라고 생각한다. 또 입식이 하나인지 둘인지도 분명치 않으나 국사로서는 절풍형의 관모나 변형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쓰는 외래풍의 幘類로 보는 바이다.

백제 국사의 관모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색도로 보아 확실히 옅은 색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대륜 밑에 검은 색은 머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관모를 고정시키는 끈이 바로 관모의 옅은 색에 연결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의 관식은 금화로서 전후 2개가 나왔으나 국사의 관식은 은화를 하나만 앞에 입식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하나만 있는 장식은 모두 앞에 위치하고 있다. 즉, 천마총에 金製鳥羽形冠飾, 또는 황남대총(북분)에서의 은제 관식, 금관총의 조우관, 부여 하황리 은제관식도 그러하다.

5. 結 論

三國史記와 周書, 北史, 隋書, 舊唐書를 살펴보면, 완전히 살피지는 못하였으나 출토품과 대비해 보면서 먼저 백제가 일찌기부터 등급제도를 衣冠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문헌에서도 왕은 금관식이고 6품 이상은 은관식으로서 5세기 이후의 출토품에서도 역력히 일치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예외의 금동관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백제시대의 관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아주 기초적인, 작은 것이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서 앞으로 많이 발굴이 된다면 영세한 백제자료라고는 하지만 조금씩 파헤쳐지리라 기대하면서 이 기대를 후학도들에게 넘깁니다.

참 고 문 헌

1. 홍사준, 百濟史料集,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2. 이남석, 百濟文化 第20集, 百濟冠制와 冠飾, 공주대학부설 백제문화연구소, 1990
3. 古墳美術, 중앙일보사, 1985
4. 이은창, 韓國服飾의 歷史—古代篇—, 교양국사총서, 1978
5. 유희경, 韓國服飾史 研究, 이대출판사, 1975
6.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7. 周書 卷49 列傳 異域土 百濟條
8. 北史 卷94 列傳 第82
9. 隋書 卷81 列傳 46 東夷 百濟
10. 舊唐書 卷199 列傳 弟149 東夷 百濟